

정의로운 과학기술자를 키우기 위하여

1760년 기계공업이 등장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 유럽의 각국에 파급되어 인류의 의·식·주가 급속히 풍요로워졌으며, 이에 따른 산업 및 사회 발전이 가속화되고, 교통·통신·유통의 발전은 지구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마침내 지구 밖 우주까지도 인류의 활동영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인류사회의 경쟁조직 속에서 극소(極小), 극대(極大), 고속, 다양화 등을 추구하는 인류의 끝없는 욕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뒤에 마치 햇볕에 따라 다니는 그늘 모양, 부정적(否定的)인 유산(遺産)이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었으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아 거의 무시해 왔는데, 요즈음에 와서 각종 공해는 공기, 물, 소음, 각종 폐기물 등이 지구의 자연환경마저 변경하고 파괴하여, 건강의 파괴나 살상·파괴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이나 가공할 살상력을 지닌 각종 무기류 등은 인류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그동안 살아온 부정적인 유산에 당혹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다 잘 아는 일, 책임지지 않을 일만을 하거나, 옳고 정의로운 일을 진취적으로 용감하게 추진시키려는 정의감을 상실한 과학기술자가 많으며, 이들 비겁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각종 악(惡)이 거대하게 자라는 것을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에서는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日本技術者教育認

定機構)가 새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하고, 대학의 과학기술자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의 여러 요구 수준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인정 (professional accreditation)하는 제도”가 가능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학 등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과학기술자의 윤리(倫理)에 관한 교육일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자는 신중하면서도 정의감을 지키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용감하게 우리의 자연이나 인류에게 정의롭지 않은 활동을 회피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며,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자 등이 지켜야 할 정의일 것이다.